

2014년 6월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에
여러분을 Los Angeles로
초대합니다
2014년 9월 26~28일



교훈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榕)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眞 진

진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善 선

선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국만리 타향의 벽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美 미

미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정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이다. 이화는 전방향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차례 | Table of Contents

• 이사장 인사말 - 장명주	4
• 회장 인사말 - 김명미	5
• 의료원장 인사말 - 이순남	6
• 의료원 소식	7
• 의과대학 소식	8
• Editorial - 이화 사랑	9
• 장학부소식	10
• 장학생 편지	11
• 총회보고	12
• 총회 사진	14
• 동창 탐방 - 푸른 초장의 집 / 이춘자	18
• 동창 탐방 - 자랑스런 이화인 / 김정희	19
• 기림비 평화가든	20
• 추모 - 찬란하게 빛나는 별 / 김은경	21
• 설문지- 북미주 동창회와 나	22
• 수필 - 이화 동산의 추억 / 정인자	24
• 수필 - 춘천 여정 / 이정인	25
• 수필 - 만주벌에서 / 김현자	26
• 수필 - El Camino de Santiago / 이혜리	28
• 수필 - 9월이 오면 / 이정순	30
• 시 - 김인자 / 이(황)춘자	31
• 동문활동 - 정(문)금숙 / 김화진 / 서동주	32
• 지역 활동소식	33
• 임원명단 - 2013-staff list	34
• 프로그램 / 총회 이사회 Agenda	35
• 총회 신청 안내 및 총회 참가 신청서	36
• 여행일정	37
• 광고	38
• 예술전시회 - Art Exhibit 안내	44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올 2014년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 총회가 9월 마지막 주말에 꽃 향기와 상큼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주는 남가주 Los Angeles에서 열립니다. 현재 김명미 회장님과 준비위원들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멋진 동창들의 만남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북미주 동창회 모임의 THEME 은 ‘동창을 중심으로한 동창회’ 라고나 할까요?

2013년 Chicago의 연례총회에서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의 방향을 재 설정했고, 동창회 발기의 창립의도를 재확인하며 ‘동창을 위한 동창회’라는 이념 아래서 2014년의 연례모임은 더욱 의미 있고 두고 두고 간직할 추억거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북미주에 흩어져 열심히 살아가는 이화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이번 Los Angeles 모임에 다시 한 번 이화인임을 깊이 느끼며, 이 만남 속에서 선후배 간의 다정한 우정을 함께 나누며 진득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축제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오랫동안 담소도 나누시고 함께 웃으며 삶의 에너지도 충전 하여 더 젊고 건강해져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LA 에서의 반가운 만남을 기다리며 동문 한분 한분의 하루하루가 편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장 명 주 (의대, '77)





2014년 9월 26일 부터 시작되는 제14회 이화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총회와 연이어서 계획하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해안 여행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께 만나게 되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한영숙 준비위원장님의 헌신에 힘입어 각 분야별로 북미주 동창들을 맞이할 준비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이화동창회는 모교와 이화동창을 사랑하는 북미주에 살고있는 이화인들이 2000년 5월에 동창회 창립공고를 시작으로 미주 501(C)3 비영리단체로 인가된 후에 2001년 5월 Chicago, IL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뜻있는 많은 동문들이 첫 총회에 참석하여 가슴 뜨거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김정희 창립위원장은 “동창은 이화의 보배이고 이화가 배출한 가장 중요한 자산” 이라 하였습니다. 조용옥 초대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본동창회는 본국 동창회의 해외에 있는 지회로서 동창과의 친목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본국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국제재단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모교가 21세기 세계화 하는데 주춧돌이 되어야한다” 고 하였습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동창회의 vision, mission 그리고 목표를 재 음미하며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화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며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20년전 목동 병원에 동문들의 정성이 함께하여서 한국인과 세계여성의 건강 증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1200병동의 제2병원 건립을 마곡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여성의 건강도모와 증진을 도모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과감하게 여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원 높은 세계적인 이화여대로 도약하는 의미있는 제2병원건립에 동문님들의 정성과 뜻이 기금으로 모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이순남 의료 원장님(겸 부총장)을 모시고 모교 이화 소식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까? 말까? 했는데 오기를 참 잘했구나, 다음에도 꼭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 임원진과 준비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이곳에서 뵈 때까지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장 김 명 미 (의대, '67)



사랑하는 이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 동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잊그제 만난 듯 정겨운 마음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장명주 이사장님, 김명미 회장님, 한영숙 준비위원장님, 임성숙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모국을 방문하시는 선후배 동문들의 말씀과 매년 발간되는 동창회보를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이화의 위상을 높이는 선후배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동문의 한 사람으로 더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장학사업을 통해 후배들을 후원하시고 다양한 친교 활동으로 동창 간의 화합을 도모하시는 정겨운 모습을 보며 이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 한가족인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최고 여성교육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를 품는 글로벌 여성지도자 양성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동문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도 이제 세계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으로 설립된 이래, 교육, 연구, 진료분야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이제 제2부속병원의 건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지어질 새 병원은 그 규모나 시설 면에서 최첨단 국제 병원으로서, 고도의 전문화 전략과 혁신적인 진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탁월한 연구역량을 가진 전문의료인력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담아 참된 인술의 공간을 짓고,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세계속에 이화의 위상을 심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화를 세우신 사랑과 헌신의 메시지가 소외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소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빛이 되는 사명을 기꺼이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환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동문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 2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모금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문께서도 의료원의 발전과 제 2 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소중한 뜻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손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미래가 가까운 현실이 될 것이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화 동문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의료원이 되기 위해 저희 교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화의료원의 미래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순 남 드림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수상

- 여성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2개 부문에서 이대여성암 병원,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2014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2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유일의 여자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5월 22일 서울컨벤션 일루미나홀에서 열린 “제16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여성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여성소비자 대상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및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여성암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대여성암병원은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시술,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 병동 등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혁신

적인 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여성암 환자의 큰 호응을 받음으로써 의료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검진을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는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시스템과 여성친화적인 편안한 진료 환경을 구축,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건강증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신속하고 편안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암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의료원은 올해 3월부터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 건강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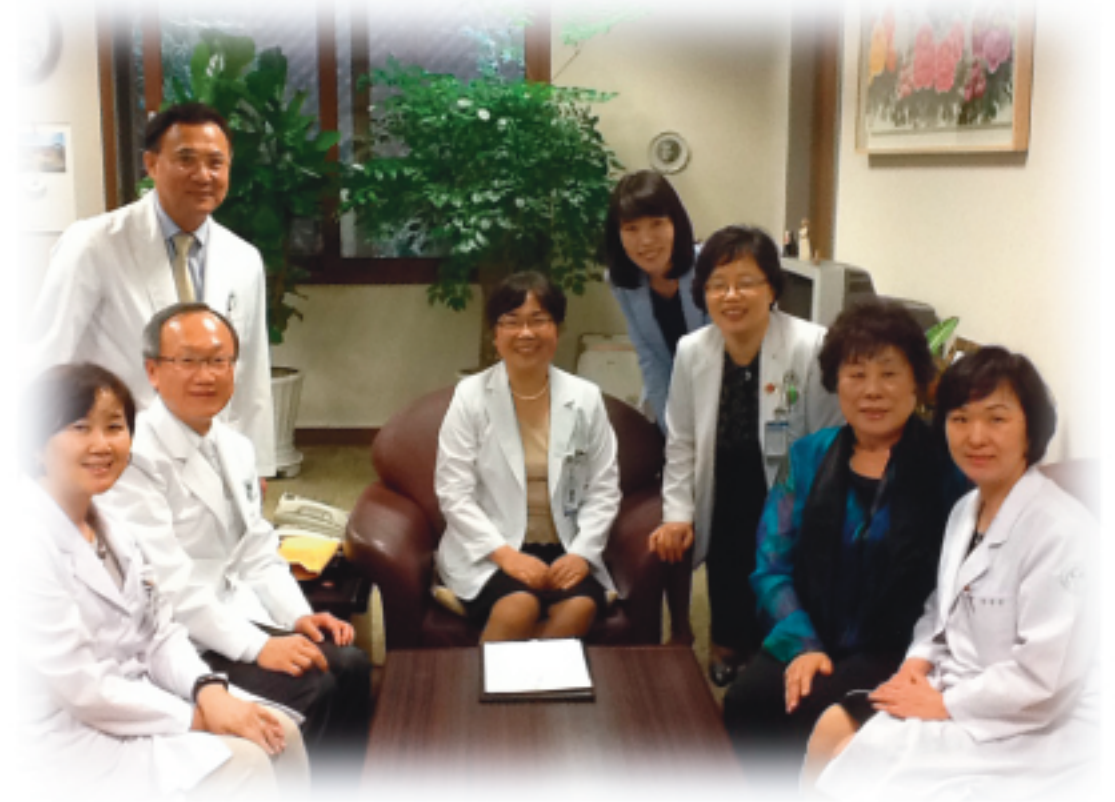


▲사진 설명 — 사진 왼쪽부터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김정숙 이대 여성건진센터 / 건강증진센터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및 의과대학 투시도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소식



2009 년 Denver, CO 에서 결성된 의과대학 북미주 동창회는 매년 열리는 이화여대 북미주 연례총회 때 각지에서 참석하는 의대동문들과 꾸준히 친목과 교류를 다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Chicago 총회에서 2대 김명미 ('67) 회장님의 뒤를 이어 오구미 ('78) 동문이 3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새 회장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북미주 의대동창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곡동 부지에 들어 설 이화의대 제 2 병원의 신축을 위해 기금조성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미주 내 동문들의 주소록 발간을 완결 하여, 인쇄된 주소록을 각 동문들에게 발송하기로 하고 Chicago 지역의 의대동문들을 중심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들께서 주소록을 digitalized 하였고, 또 열심히 update 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교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함께 제2병원 신축을 위한 모금호소문 및 약정서를 각 동문들에게 보내어 이 중요한 사업에 함께 동참하기를 호소 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의대 연례모임은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가 열리는 Los Angeles 에서 9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며, 병원건립 및 후원에 관한 의논 외에도, 의대 북미주 동창회의 회칙을 정립하고 성문화하기 위한 안건도 다루어 질 계획입니다.

북미주에 거주하시는 의대 동문들 400여명 중 25% 이상이 California 주에 살고 계심을 감안 할 때, 올 9월의 연례회의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문들께서 참석하셔서 그리웠던 옛정도 나누시고 발전해 가는 모교의 소식에 가슴 벅차 하시면서 이화인의 긍지를 새롭게하는 귀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북미주 의대 동창회회장 오구미 ('78)



이화 사랑의 뜻을 크게 키웁시다

우리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첫 발을 디뎠던 순간 이화와 우리의 공생이 시작되었지요.

이화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여성의 자세 그리고 현실적인 봉사로 우리 삶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백만 송이의 배꽃이 되었고, 그 중 몇 송이의 꽃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동창회라는 울타리 안의 이화 나무에 연결 되었습니다.

긴 세월 각자 개개인의 생활에 주력했던 배꽃들은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동창회를 통해 재결합의 싹을 틔웠습니다. 잎줄기와 이파리가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줄기가 되고, 모두들 저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을 하여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며, 땅속 깊숙한 수분을 빨아 들이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노력이야말로 자연의 섭리를 상기시킵니다.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조용히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와 자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구성된 “이화여자 대학교 북미주 동창회”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할 때, 때로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흐름이 나 또는 개개인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순수한 공동체의 비전있는 mission, 창립의도에 맞는 공동체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진실한 협조를 하며, 도출된 의견과 선택한 방향을 향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세를 따라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개개인이 각자의 의견만 고수할 경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뜻하지 않은 잡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 한사람이 잠시 말을 접고 기다려 준다면 잡음은 점차 작아지고 결국 우리 귀에는 진실한 소리가 들릴 수 있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습의 active participation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파릇 파릇 잎사귀가 돋고 있습니다. 다 성장하기도 전에 너무 서둘러 꽃을 보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을 잠시 누르고, 또 피어날 꽃과 꽃향기가 우리의 시각, 후각을 즐겨줄 그때가 꼭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화사랑”의 뜻을 크게 키웁시다.



EWHA WJANA 2014

2013/2014년 북미주 동창회 장학부 활동 보고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성적과 재능, 지도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뜻깊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의 장학금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 사랑으로 전해지고, 나아가 미래에 나눔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이화 동문 유학생과 북미주에 거주하는 동문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2013/2014 장학금은 지원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수한 대학생, 대학원생 6명에게 만분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나눔의 철학이 녹아 있는 개인, 단체, 사회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축복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나누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꿈꾸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응원하고 돕는 뜻 깊은 일에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후원금이 모아 저 크게, 넓게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장학금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서는 북미주에 유학 오는 이화 대학생, 대학원 학생과 북미주 동창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는 www.ewhain.org에서 download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2), 재학증명, essay등 입니다.

각 전공 분야에서 우수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 2014년 에도 장학금 총 \$10,000를 아래와 같이 수여하게 됩니다.

\$3,000 1명 \$2,000 2명 \$1,000 3명

신청서: www.ewhain.org website에서 download

신청마감일: 2014년 7월 31일

보낼곳: Hyoeun Cho Shorack / 4926 Regla Court, San Diego, CA 92122

연락처: (858) 452-9825, (858) 525-5211 / hshorack@san.r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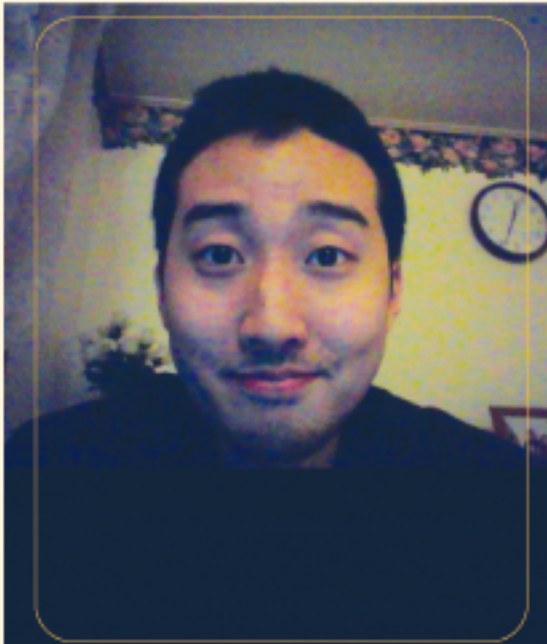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As it stands, the film industry is extremely difficult to break into and I have many factors working against me, such as my ethnic background and being a female, especially in Hollywood. However, that has never been a source of shame but rather a motivation to work even harder so that I can act as the representative of everything I come from. In pursuing this career goal, it is difficult to get a leg up when many of the necessary resources in being a real competitor are out of my financial reach. This scholarship has helped fund relieve that financial strain so I do not have to cut down in the quality of my work to stay within my financial limits. This scholarship has helped me to compete more fairly with other students and I am forever grateful for the support of the Ewha Alumni Association.

Again, I'm open to any revisions in making the statement fit the bill. Thank you!

Eunice Jeon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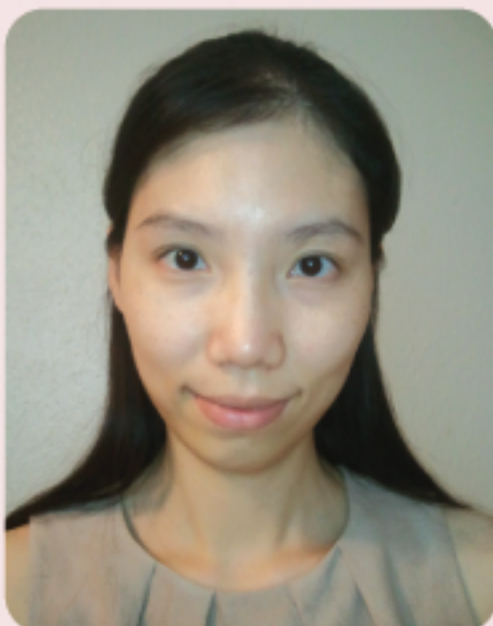
I very much appreciate being awarded the 2013 EWUAANA Scholarship.

The sum awarded allowed me several opportunities, namely cutting back on work hours in order to study. It also allowed me to purchase supplementary course materials that allowed me to better understand topics. As an English literature major on the premed track, I have also been able to pursue several other extra ventures that enhance my education and productivity. Chief among them are starting a brand new student organization for film appreciation with fellow literature students, along with joining the local chapter of the Americ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

I will never forget this generous contribution by Ewha Womans University, and as I continue on my current track (with the goal currently being to become an Infectious Disease/Pathology specialist) I look forward to returning that contribution towards society many times over.

Sincerely,

Sean Ki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lass of 2016)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Thank you notes

이화 장학위원회분들께,

안녕하세요? 북미주 이화 동창회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서유선입니다. 휴학을 해야할지 막막 하던 터에 이 장학금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북미주 이화 동창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를 졸업하고 이렇게 이화의 힘을 미국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서 저도 이화 동창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유선 올림

2013년 총회보고



CHICAGO



2013년 9월 27일 총회 첫날 북미주 각 지역에서 시카고로 찾아 온 동창들은 임원진의 각별한 배려아래 자진해서 나선 동문부군들의 차편으로 편하게 호텔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정장차림의 오빠들이 스케줄에 맞춰 도착하는 동창들에게 일일이 빨간 장미꽃을 건네주며 기쁘게 맞이함은 꽤 감동적이었다. 호텔에 도착한 동문들은 등록에 이어 hospitality room 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도시락과 과일을 들며 반갑게 친교를 나누었다. 3시 반에 시작된 임원 이사회에서는 사업보고, 의과대학 동창회 활동 보고, 감사보고와 결산 예산심의가 있었고, 김명미 (의대, 67) 차기 회장 인사에 이어 공천위원회의 이영희 (국제사무, 76) 수석부회장과 장명주(의대, 77) 이사장 추천이 있었다. 2014년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동창회 미래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는 후 오랫동안 만난 친구 선후배들은 풍성한 해산물 요리로 준비된 버펄만찬을 나누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자리를 옮겨 가진 친교시간은 사회자의 무궁무진한 재치로 모두들 웃음보를 자아내는 가운데 처음 참석자라는 어색함 없이 서로를 소개하며 인사 나누는 즐거운 시간으로 이날의 행사는 끝났다.

다음날 이른 아침 숲속에서의 산책과 체조에 이어 아침식사 후 우리는 버스 두대로 세계적인 건축가이며 혁명적인 건축이론을 세운 Frank Lloyd Wright의 자택과 작업실을 찾았다. 자연과 조화를 강조하여 초원위에 유기적 건물을 지어 “프레리 하우스” 시리즈를 남긴 그분의 그림같은 생가였다. 미 중서부의 광활한 평원에서 영감을 얻어 Wright가 지은 오크 파크 지역의 집 건축물에서 시작하여 시카고 시내 현대 고층 건물 양식까지 이곳 건축물은 시카고 관광의 필수다. 또한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문호 헤밍웨이가 대자연 속에서 그분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감수성의 토양이 된 그의 출생지이며 고교 시절까지 생활한 오크 파크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내놓은 문화유산을 찾았다. 오전 관광후 호텔에 돌아와 문학, 건강, 시와 사진감상의 세미나가 열렸다. 신정순 교수의 “한국 현대시의 향유”는 문학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재미있게 전해 주었고, 의사 장명주동창은 “Pain: Living Life” 주제로 aging과 pain 그리고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비결들을 조리 있게 들려주며 스트레칭에 필요한 Thera-Band도 하나씩 나누워 주었다. 그리고 의사이며 사진 작가요 시인인 이희련동문의 부군 김택수씨는 사진과 시를 동시에 보여 주면서 사진을 통한 예술 속에서 시상을 음미할 수 있는 색다른 감상의 세계를 소개하였다. 의대 동창들을 위한 의대모임이 계속 이어졌다.

저녁에는 우리모임의 하이라이트인 연례총회 및 만찬이 Chicago Symphony 의 현악 멤버들의 은은한 음악으로



EWHA WUAANA 2014

향연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는 가운데 Grand Ball Room에서 열렸다. 송복진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사업보고, 결산, 예산발표가 있는 후 조효은 장학위원장의 선출된 5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수여와 한영숙 동창에게 자랑스러운 이화인 시상이 있었다. 이예덕, 백지숙 동창의 축하 입춤 공연은 만찬과 이부순서를 멋있게 이어 주었으며 우리들은 식사시 “사진으로 본 북미주 동창회 역사” 슬라이드 쇼를 감상했다. 사워합창으로 시작된 2부 순서는 동창회의 자랑 구은서 동창의 사회로 현대, 고전, 연극등 다양한 춤과 노래 또한 창의적인 talent show등으로 흥을 북돋아 주었다.

계속되는 아름다운 가을날씨가 우리의 연이은 행사들을 축복해 주었다. 일요일 아침예배를 드리고 시카고 Architecture Boat Tour에 나섰다. Illinois 강을 타고 시카고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하고 개성이 특이하며 웅장한 건물들을 감상하고 미시간호로 나가서 멋진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배경으로 원근 시카고 Sky Line과 하늘을 찌르는 고층건물들을 접할 때는 모두들 그 절경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China Town에서 점심을 나누고 Obama 대통령 주택과 Gothic 건물로 둘러 싸여있는 시카고 대학을 둘러보았다. 이대학은 Enrico Fermi 교수가 처음으로 원자력 핵 연쇄반응을 실증한 곳이고 조각가 Henry Moor가 원자탄의 버섯구름을 상징하여 만든 그 유명한 조각이 있어 우리는 그 조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Museum Park와 Millennium Park를 둘러보고 시카고 한인들의 힘으로 장만한 한인문화회관으로 향했다. 2010년 라스베이거스 총회 때 김홍자(섬예, 58입) 교수가 시작한 동창들의 예술 슬라이드 쇼가 처음 있는 후 올해 3번째로 “리바이벌” 미술 전시회가 12일 동안 열렸는데 그 작품들의 수량, 크기, 수준은 관람인들을 앞도시켰고 전시회가 개관된 이후 가장 좋은 호응을

받은 전시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다. “Ewha Art Exhibit 2013-REVIVAL III”는 또한 고 김경애 동창의 추모 전시를 겸하여 과거 그분이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 파리 샬롱에서 수상된 작품들도 동시에 전시되었으며 그분의 삶과 작품을 보여주는 슬라이드 쇼도 있었다. 이어서 동창미술 활동을 도우기 위해 시작된 “김경애 Memorial Art Fund”에 1만 4천 6백불의 기금이 모였다는 활동보고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부군 방은호씨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Blues의 발상지요 Jazz의 도시로 알려진 시카고에서 감미로운 Jazz 5중주 연주를 감상하며 시카고 동창들이 준비한 한식을 함께 맛있게 나누고 멀리서 방문해온 호경진동창의 기타선율에 맞추어 모두들 흥겨운 Sing along으로 밤은 깊어만 갔다.

9월 30일, 총회 마지막 날의 간담회는 우리 동창모임의 진수이다. 이번 모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동창회를 지향해 갔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의견들을 저마다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소감과 제안을 하는 시간이다. 오금녀 선배님의 북한에 고아들을 돕자는 호소에서 시작하여 우리동창회를 많이 아끼고 성원하는 남편들의 진솔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기회도 있었다. 그동안의 좋았던 발전 또 어려웠던 일들을 진지하게 짚어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총회를 마쳤다. 풍성하고 격조 높은 모임, 선후배들이 극진히 서로 아끼고 협조하면서 이화인들이 마음과 힘을 모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불어 넣어주는 모임이었다. 이러한 모임을 총괄하고 풍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복진 회장, 구광자, 홍명희 공동위원장 및 임원들의 노고와 훌륭한 리더쉽에 감사드리며 부군들을 모시고 북미주 많은 곳에서 찾아오신 동창 여러분의 가정위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WHA WUANA 2014









‘나’만의 삶에서 ‘너’를 위한
삶으로 살려고 애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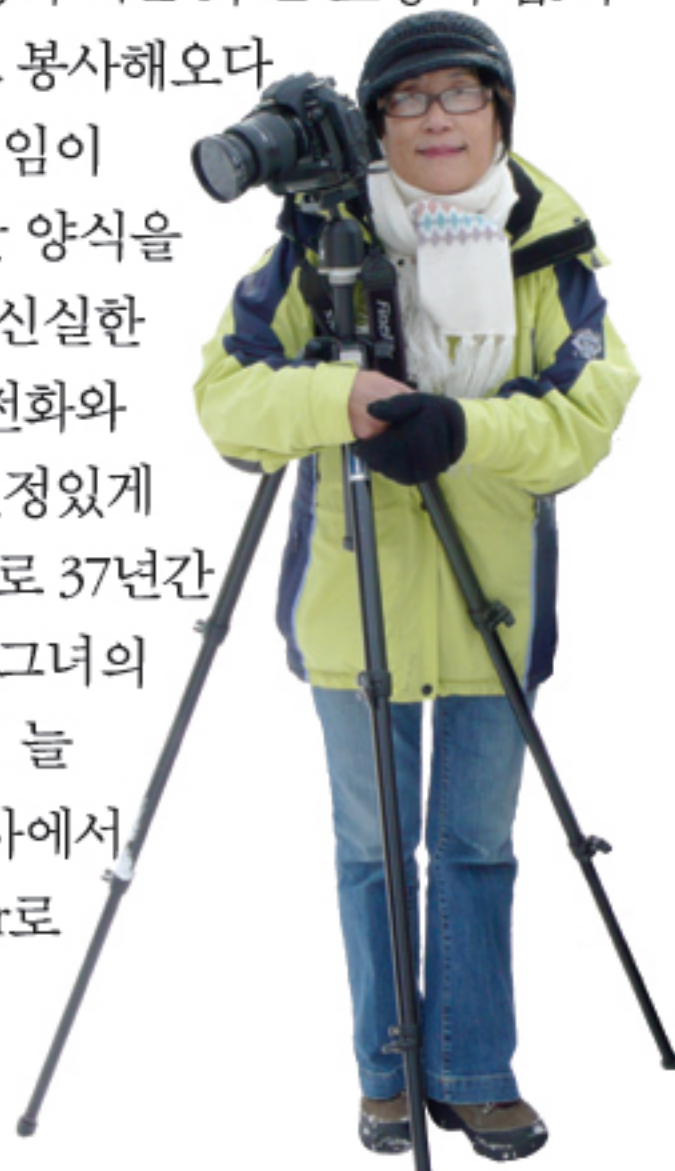
푸른 초장의 집

이춘자 (약대, '62)



“살아가면서 아픔이 너무 많았기에 힘들었지만, 이제 생각하니 고통도 축복이란 의미를 가슴깊이 심어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을 통해 눈을 열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진솔히 이야기하는 이선배는 절망속에서 [푸른 초장의 집]을 찾아 온 자매님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돌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가정 폭력으로 피해당한 여성들과 자녀들이 가족이나 친지가 못 받아주는 사정으로 인해 여성보호소, [푸른 초장의 집]을 찾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매님들의 상처가 언젠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이란다.

경기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1962년)하고 약사 이민으로 미국에 건너 온 이춘자 동문은 LA에서 약사로서의 길 대신 Equitable Life Insurance 에 다니며 삶의 기반을 쌓았다. 전공인 약사로 생계를 지켜왔으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 왔겠지만, 일한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은 돌이켜 보면 훗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같다고 그녀는 힘주어 말한다. 비영리 단체로 후원금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는 [푸른 초장의 집]의 일년예산은 십만불이다. 이사로 봉사해오다 2000년부터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무거워진 이 동창은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기도와 함께 모금활동을 위해 전화와 서신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히 열정있게 살아가는 분이다. AXA advisor로 37년간 일하며 알게 된 많은 고객들이 그녀의 모금활동을 수월하게 도와주어 늘 감사한 마음이란다. 2003년 회사에서 은퇴한 후 지금은 senior advisor로 일하며 [푸른초장의 집] 운영에 성심을 쏟고 있다.



[푸른 초장의 집 · Home on the Green Pastures]은 가정 폭력

과 학대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긴박한 위험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해준다. 이 여성보호소는 1993년에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세워졌으며 이화여대 북미주동창회 현재 회장이신 김명미 동창이 설립하면서 처음 4년간 이사장으로 봉사해왔다. 구약 시편 23편에서 이름을 따와 [푸른 초장의 집]으로 불리우는 이 보호소는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아울러 가정폭력 인식교육, 자기향상 교육과 상담을 받게 한다. 침실 3개와 부엌을 갖춘 가정집 크기의 이 보호소는 비좁은 장소로 찾아 오는 자매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 아픔속에 2002년 부터 두번째 집 마련을 위한 모금에 이춘자 이사장이 매진하고 있단다.

62세에 은퇴하여 부군과 함께 여생을 즐기려고 계획했던 일이 은퇴한지 몇 달 안되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남편을 잃게되자 선배는 고통속에 40lb의 체중을 잃었다. “보험 때문에 손님들과 산다”며 늘 불평한 남편과 못다한 사랑을 은퇴한 후 나누며 살고 싶은 그녀의 마음도 모른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일찍 데려가셨기에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혼자 고독한 삶을 11년간 살아왔다. 이 아픔을 계기로 하여 [푸른 초장의 집] 일을 위해 정성을 쏟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는 작은 체구의 그녀에게서 강인함이 느껴졌다.

San Clement의 바닷가 아름다운 집에서의 그녀의 삶도 세월이 흘러가며 안정이 되어갔다고 한다. 고객의 소개로 모처럼 사진 전시회에 갔다가 그녀의 눈길을 끈 작품들이 1년반을 공부한 학생의 작품임을 알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받아 그때부터 이 동창은 사진 찍는 공부를 시작했다 한다. Nixon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San Clement의 아름다운 바닷가, 언덕과 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꽃 Golden Poppy들이 춤을 추고 있는 들판이 그녀의 카메라 렌즈에 잡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황홀함과 즐거움을 주게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원경 장로님과 1년 전 결혼한 이춘자 동문은 Glendale에서 그동안 촬영해 온 1만여 사진들을 추리고 사진 찍을 때마다 영감으로 적어 놓은 시와 글들을 엮어 한편의 책 「Poppy꽃들의 왈츠」를 7월에 출판할 계획이라고 조용히 알려 주었다. 앞으로 이 동문의 삶도 춤추는 왈츠곡처럼 한없는 즐거움의 연속이기만을 바란다.

편집부

자랑스러운 이화인

여성의 부드러움과 함께 풍겨나는 소신과 강인함

김정희 동창 (가정, 60)



만약 내가 다른 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줄 수 있다면 그에게 있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스티브 강 장학재단은 이런 뜻으로 김정희 동창과 부군 강수상 교수가 함께 1999년에 시작하였다. 이 재단은 대학원생이었던 아들 스티브 강의 스물 여덟이란 짧은 생애를 기리며 꿈과 열정,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의지가 있는 젊은이들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5년간 약 175명에게 60만불의 장학금을 수여해 왔으며 그동안 김동창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진 재단의 활동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꽃 보다 아름다운 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김정희 동창은 경남 진주에서 삼대독자와 칠공주의 둘째 딸로 태어나 이화여고를 거쳐 1960년 이화여대 가정과를 졸업했다. 유학 오기 전 그는 잠시 모교 이화여고에서 교직 생활을 했고 1964년 퍼듀 대학에서 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조교수로 근무하다 시카고에 있는 식품회사 (Swift and Esmark) 연구 개발분야에서 1979년 까지 책임 연구원으로 식품영양과 새 식품개발을 연구했다. 1972~1979년 연구실 과장으로 회사 경영진과 함께 일하면서 1976년에는 Esmark의 Outstanding Woman Leader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가졌다.

어릴 때 부터 사업가인 부친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나 여자가 하기는 험하고 힘들다 하여 교육자, 과학자의 꿈을 키워오던 그에게 1979년은 과학자에서 기업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들렀다가 “한국은 수출을 해야 살 수 있다”는 Slogan과 급격히 개발되어 가는 한국 상품에 매료되었다. 마침 한 무역상사가 국산 제품을 대어주겠다 하였고,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어 그는 미국에 돌아와 직장 동료 한 분과 의기투합하여 새 회사 (Korex) 를 설립, 한국 상품의 수입과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SBA Loan을 얻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였으며 사업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4백 5십만 불의 Industrial Revenue Bond 를 받아서 사무실과 창고를 지었고 한국과 대만 나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들을 미국 Chain Store들에 납품하게 되었다. 늘 앞서가는 새로운 비전과 꾸준한 추진력은 김 동창만의 특유한 장점으로 많은 이들의 칭찬과 함께 귀감이 되었다.

한편 김 동문은 남동생이 한국에서 자전거 회사를 매입 하겠다 하여 함께 Joint Venture 회사를 설립, 미국과 캐나다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한 때는 미국 자전거 연간 소모량의 약 10% 를 생산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무역 탐과 대통령 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한국 자전거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 할 때 한국과 대만 자전거 수입을 억제 하려고 미국 자전거 업계가 Anti-dumping 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때 한국 업계가 단합하여 국제 상업법정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서 한국이 덤핑을 하지 않는다는 김정희 동창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 업계를 향한 제소가 기각 (대만은 빠지지못했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자전거 수출 사업의 길이 열렸고 수출은 급성장하여 3년 만에 1억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되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동창은 과학자, 기업인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일리노이주 주류사회와 교민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 왔다. 한인 무역인 협회 이사, 이사장외에 한인사회에서 봉사활동의 폭을 넓혔고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Edgar 일리노이 주지사의 인수인계 팀 (Transition Team) 의 경제발전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일리노이 주택청 (Illinois Development Housing Authority) 의 이사로 16년 동안 활동하였다. 이 주택청은 저, 중소득 주민들에게 주택소유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30여억 달러의 주택재산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고, 주지사의 인수인계 위원들은 주류사회의 최고 능력자들이었는데 이 대열에 동양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김정희 동창이 활동했음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일로 남게 되었다.

김정희 동창은 2001년 북미주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동창들을 규합하고 상호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교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북미주 동창회를 창립할 때 준비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해냈다.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을 깊이 새기며 이화의 위상을 높이고, 동창들을 위한, 동창들에 의한, 우리의 동창회가 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함께 소신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그는 많은 선후배 동창들이 아끼고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다.

편집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 가든 워싱턴에 건립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정대위)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여 “위안부 기림비 평화가든”을 정부청사 부지 안에 건립하고 지난 5월 30일 기림비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에는 2012년부터 “위안부 기림비 평화가든” 설립을 위해 힘써 계획하고 추진해온 정대위 회장 김광자 (불문 66) 동창과 정대위 이사장 이동우 (영문 57) 동창을 비롯 많은 이화동창들과 워싱턴지역 후원인들 및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나눔의 집 강일출 할머니의 과거사 증언이 있었고 미 연방 정부 마이크 혼다 의원의 축하 메시지와 페어팩스 군수 새론 블로바를 비롯 워싱턴지역 인사들의 축사가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 가든”은 2차 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징용된 “정신대”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유린 사례를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그리고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신 매매의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반인륜적인 이러한 범죄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후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가든”은 미국내 7번째 세워진 기림비라는 것과 특히 미국에서 정부청사 안에 처음으로 세워진 기림비라는데 의미가 있고 역대 가장 아름다운 기림비라는 평가를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다.

가운데 기단 위에 폭 2m, 높이 1.5m의 바위 전면과 후면에 동판이 부착된 기림비가 있고 양 옆에는 벤치를 겸할 수 있는 두 마리의 나비 형상이 설계되었다. 위안부 희생자들이 억압과 아픔과 폭력이 없는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비 형상 안쪽에 “2차 대전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며”와 “2차 대전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헌정”이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졌다.

이날 행사에서 위안부를 상징하는 나비를 cage에서 날렸던 행사 (Monarch Butterfly release ritual)와 살풀이 춤 그리고 아리랑 노래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

편집부



찬란하게 빛나는 별

김은경 (의대, 57) 선배님을 그리며 ---

지금도 선배님이 회장으로 주관하셨던 2005년도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섬에서의 북미주동창회 모임을 생각하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림처럼 아름다운 Loews Coronado Bay Resort 에서의 총회, 한쪽의 그림같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의 멋진 아침식사, 배를 타고 푸른 San Diego Bay를 넘나들며 황홀했던 시간들 또 명소 코로나도 호텔을 구경하며 가졌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 선배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많은 이화인들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추억은 저희들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추진력과 긍정적인 열정으로 모든 일에 임하셨던 선배님은 우리 동창회의 찬란하게 빛나는 큰 별이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당당함과 강인함은 나이를 초월한 멋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자랑이셨어요.

두 아들을 키우며 부부의사로서 열심히 일과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틈틈이 정구와 골프 또 Ball Room Dance를 즐겼던 선배님 은메달까지 따오는 수준을 과시하셨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부군을 잃은 후 기후 좋고 아름다운 San Diego 근교에서 아름다운 새 집을 짓고 멋진 혼자만의 삶을 펴가실 때 였습니다. 조용한 이웃 길을 조용옥 선배님과 셋이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묘한 인생의 여러 구비들을 더듬어 보았던 일이 그리워 집니다. 저희들은 취미로 시작하신 수준급 이상의 그림들을 감상하며 선배님의 탁월한 재능에 감탄했었지요. 어느 시인의 글이 떠오릅니다.

“내 무덤에 와서 울지를 마오!
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자고 있지도 않소.
나는 죽지 아니하였소.”

떠나 가셨지만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후배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신 선배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향기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피어 날 것입니다.



故 김은경 회장

박선영 (가정, 66) - Columbia, MD

A 모교의 동향과 발전상을 알게될 뿐만 아니라 동창회를 통해 선 후배들을 만나 교제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 좋은 우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

B 총동창회에는 몇번 참석을 못했지만 해마다 곱게 나이 들어 가면서도 열정있게 동문들이 활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장기자랑 하던 모습들

C 아주 자랑스럽고 큰일을 잘 해내고 있는 동창들의 소식과 함께 소소해 보이지만 늦게나마 감추어져 있던 재능을 살려서 보람있게 살고있는 북미주 이화인들의 소식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해주 (약학, 67) - Rancho Santa Fe, CA

A 동창회란 나에게 고향집 같은 것. 가끔 들려 옛 친구들 소식도 듣고 편히 쉬기도하고...

B 동창회 임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를 직접 보는것. 가끔 놀러 가듯 하지만, 그 모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애쓰는가를 보게 될때.

C 동창회에 바라는 사항은 없고 북미주에 흠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이 더 열심히 우리의 고향집 같은 동창회에 참여 했으면 합니다.

이주연 (의대, 59) - Plano, Texas

A 매년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 친목의 시간을 갖고 마음속에 우리가 속하는 동창회가 북미주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B 2001년도 북미주 총동창회 창립모임에 참석했을 때 앞으로는 해마다 동창들이 함께 모여 지역에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성장해 갈 것을 다짐했던 추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C 동창들이 매년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도 나누며 모교를 돕는 일도 하고 북미주 각 지역에 살고있는 많은 동창들이 그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멋진 이화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대로 일년에 한번씩 총회 후 여행도 하며 서로 친목하는 것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최하시는분들 께서 매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녀 (영문, 49) - Morris, MN

A 북미주에 동창들을 위한 동창들에 의한 동창회가 창립되어 기쁘고 해마다 총회를 통해 만나 친목을 나누는 가운데 삶의 활력소를 받게 되어 좋다.

B 2009년도 콜로라도 덴버에서 두 동창회가 통합하여 하나가 된 일. 2010년 라스베가스 총회 모임 후 가졌던 Bryce canyon 여행은 80살을 훌쩍 넘은 나에게 아기자기하면서 신비로운 협곡의 절경이 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C 나라가 분열된 것도 서러운 일인데 북미주의 동창회 까지 분열되어 더 서러운 일이다. 창립자 스크랜톤 여사의 숭고한 정신아래 북미주 많은 동창들의 염원이 다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해마다 동창회에서 열정있게 뜻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북미주에 흠어져 사는 많은동창들에게 진정한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김숙자 (영문, 55) - Westwood, New Jersey

A 현실을 잠시라도 떠나서 같은 교정을 밟았던 선후배가 함께 자매처럼 친목을 나누며 꿈과 희망과 웃음이 가득했던 옛 시절에 젖어서 허물없이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있어서 좋다.

B 2013년도 시카고 동창회를 참석했을 때 55년전에 University of Chicago 대학원에 입학했던 추억과 55년후에 시카고 대학교 교정을 다시 밟을 수 있어서 감개무량 했다.

C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일년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이화의 자매로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한때 이화라는 같은 창문을 바라본 [이화 동창], 혹은 같은 이화의 문이라 불리운다. “동창은 이화의 보람” 동창은 이화여대가 배출한 이화여대 북미주 동창회는 북미주 동창들을 함께 모아 동창회란 만남의 경험과 애환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삶의 활력소가 되 15주년을 바라보며 “북미주동창회 설문에 따른 서로의 진솔한 이

북미주동창회

- A** 동창회가 나에게 주는 의미
- B** 동창회에 참석하며 잊혀져 가는 추억
- C** 동창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
(동창회에 바라는 사항)

성유나 (영문, 79) - Chicago, Illinois

A 가을은 짧다. 우리네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을 산이 붉게 물들 듯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의 가을 역시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 즈음 나는 동창회를 찾았다. 동창회는 나에게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었다.

B 동창회를 참석하면서 앞으로는 해 볼 것 같지 않았던 “텔런트 쇼”. 준비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봐 줄 기회가 있을까 싶다.

C 나 개인이 아닌 둘 이상이 모였을 때는 항상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북미주 동창 회원간에도 북미주 동창과 지회 문제에도 이 “소통”이 잘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A 내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것은 Florida Orlando(2008), Alaska Cruise(2012) 그리고 Chicago(2013)에서의 총회였습니다.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부심과 소속감에서 나누는 동문들의 서로 아끼는 마음이 꼭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김영수 (가정, 66) - NY, New York

A 제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것은 Florida Orlando(2008), Alaska Cruise(2012) 그리고 Chicago(2013)에서의 총회였습니다.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부심과 소속감에서 나누는 동문들의 서로 아끼는 마음이 꼭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B Alaska Cruise 때 준비하신 모든 program과 특히 관심이 있는

강의 주제들, 2013년 Chicago에서의 연례모임 때 가졌던 짜임새 있는 시내 관광.

C Inspirational speech와 동문이거나 외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담, 성공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가정과 직장으로 바쁜 생활을 하다보면 참석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

박혜경 (화학, 82) - Las Vegas, Nevada

A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서 나를 잊어가고 있었는데 나도 한국에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여성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크지는 않았지만 가졌던 옛꿈을 다시 상기시키고 나를 돌아보며, 선배님들을 만나며 그들처럼 자존심을 갖고 곱게 늙어가고 싶게 하여주는 귀한 모임이다.

B 너무 많지만 라스베가스 총동창회를 개최하면서, 각자 흩어져 모임에도 잘 나오시지 않았던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개최당일 모두 모여 돕는 모습과 합창 등 모든 행사에 발벗고 나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이다. 라스베가스 이화동창 최고!!!

C 아집을 버리고 뭉치자!!! 이유와 사연은 많겠지만 동창회는 동창회일뿐, 서로 이해하고 재미있게 지내자!

정혜전 (동양화, 90) - Washington, DC

A 동창회에 참여함으로써 이화인이라는 사랑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B 2012년 3월에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경애 회장님의 일품 요리강습과 비즈아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비즈아트의 소품들(목걸이와 팔찌)이 2008년 동창회 모금에 크게 기여했던 일은 흐뭇한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C 장차 통합이 되어 '이화'가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태주 (성악, 58) - Philadelphia, PA

A 이화동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들은 북미주에서 이화 동창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친목을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꿈을 이루워 갈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B 북미주에 1만여 이화인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례 총회를 통해 해마다 아름다운 이화인들을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어서 꼭 좋다. 요즘은 건강상 참석하기가 힘들지만 특히 시카고 동창들의 선 후배간의 배려하는 고은 마음 씀씀이에 감복했으며 그리워진다.

C 북미주의 이화인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이화동창들은 이화대학교라는 한 띠로 매어져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해와 사랑으로 풀어가기를 바란다.

라보며 배운 사람으로 우리는 문화생이라는 뜻으로 [이화동문]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주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창의 광장을 통해 각자 삶에서 얻은 데 상호지원하며 우정을 돈독히 어왔다.

창회와 나” --- 주제아래 3 가지 야기를 나누고 싶다

창회와 나

미는?

지지 않은 일들?

는 일들?

상)



이른 3월의 이화동산의 바람은 꽤나 쌀쌀하다. 명동 양장점에서 맞춰입은 아직 몸에 배지않은 투피스 수트에 언니에게서 물려받은 얇은 미제 흰 블라우스를 받혀입고 책과 노트를 팔에 끼고 등교하면 소강당, 중강당을 지나는 길에 봄이 완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달래는 가장 먼저 숲길을 물들이는 봄의 전령. 회고, 옅은 분홍색 꽃을 피울 나무들은 진분홍색을 가득 머금은 봉우리들로 가지가 뒤덮혀 있다. 잘 다듬은 회색빛 돌로 외관을 쌓은 아름다운 건물 중강당의 음악실 앞을 지나노라면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소리가 들려 발을 잠시 멈추게도 한다. 클래스가 끝나면 우리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대 앞길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선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긴 여름 방학을 앞두고 대강당에서 보는 마지막 날의 채플에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빠트리지 않고 불렀는데 이 찬송은 늘 내 맘속에 그 초 여름의 채플시간을 연상시킨다. 가을학기가 되어 9월에 학교에 나가면 동산 길을 따라 빨간 사르비아가 가득 만발해 피어 있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뒷길을 따라가서 아늑한 총장 공관의 언덕에서 조출한 여고 동창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딱딱한 규율, 짙은 블루색의 교복에서 갓 벗어난 열여덟 아홉 살의 앳된 예비 숙녀들이었다.

1학년때는 2~3백명의 신입생들이 대강당에서 철학개론을 들었다.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실존주의 철학까지 망라했는데 이 광범위한 과목에 시험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희한한 채점방법을 교수님이 발표하여 위로했다. 교수님 말씀이 자기는 시험지를 높은 곳에서 뿌려 떨어지는 곳에 따라 A, B, C를 준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아니었으나 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그 당시 나는 K고교에 다니던 조숙한 내 남자동생과 뜻이 맞아, 미제 고물 전축과 헌 LP판을 사서 클래식 음악을 들곤 했다. 그래서 교양과목인 “고전음악 입문”을 등록했는데 첫 시간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in D major)을 들려주어 내 마음이 온전히 매료되었다. 이 과목은 내가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겨울방학은 40일이나 된 긴 기간이었다. 하지만 나영균 선생님은 영어 소설반을 만들어 선생님 자택에서 주로 19세기 영문소설을 읽고 우리들과 토론하곤 했다. 친한 친구 노영자와 같이 선생님 댁을 드나들던 즐거운 기억이 있다. 그 때 읽었던 책들이 “오만과 편견”인데, 후에 우리 아들들이 Mr. Darcy와 여주인공 Elizabeth의 데이트 관계를 비판할 때 나도 한마디 거들며 내 지식을 은근히 뽐낼 수 있었다.

나 선생님은 Shakespeare의 Hamlet을 강의하며 Hamlet의 독백을 마치 연극 속의 덴마크 왕자나 된 듯이 멋진 영국 발음과 억양으로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던 교수님이시다. 한국 최초의 여류 화가 나혜석씨가 그의 고모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서로 닮은 면모가 많은 분들이었다. 과장 이석곤 선생님, 영어연극을 지도한 김갑순 선생님, 김세영, 김옥자 선생님, Miss Crane은 모두 잊혀지지 않는 고마우신 은사님들이시다. (Miss Crane은 한국 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약혼자로 인하여 서울에 와서 이대에서 journalism을 가르치며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셨다. Henry W. Longfellow의 헤어진 약혼자를 일생 찾아 다닌 “Evangelin”을 연상시키는 순애보의 여성상이다.) 김옥길 교수님은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시다가 우리가 4학년 때 총장이 되셨다.

이화 동산에서 문학, 철학, 고전 음악 등의 입문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굳이 외곬으로 파고 들어가는 끈기의 노력이나 고통 없이 평생 인문학을 사랑하게 된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후에 H. W. Janson 의 art history 책을 쉽게 읽고, 어렸을때 팽개친 피아노를 어른이 돼서 독학할 수 있었던 의지, 미국 와서는 도서관학을 공부하고 Ph.D인 남편을 만나 수월하게 결혼에 골인하게 된 것도 이화대학이란 커다란 간판(?)을 후광으로 했던 덕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가주에 살면서도 어디에 가든지 손쉽게 동문을 만날 수 있고 사랑과 추억을 나눌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축복으로 감사한다.



춘천여정



이정인 (법대, '75)

전부터 궁금했던 청춘열차를 혼자서 시승하기로 했다. 토요일이라 북적대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지만 1시간 30분 걸리는 일반기차도, 종착역인 춘천에서 50분내로 청량리역까지 되돌려놓는 고급스런 청춘열차도 생각외로 빈자리가 많았다. 유명세로 줄서서 먹기도 힘들다는 숯불 닭갈비와 막국수집들도 한산했다. 다른 이유가 없다고들 한다.

용문행을 탈것인가 춘천행으로 할것인가 고민하다 경춘선이 자주 있다는 말이 생각나 춘천행을 택해 상봉역에 섰다. 색깔도 요란한 청춘열차(itx)는 지하철에서 그대로 연결되는것이 아니라 ktx처럼 따로 표를 사서 전용 플랫폼에서 타는 것임을 거기서야 알았다. 돌아올때는 청춘열차를 타기로 했다. 역시 나이많은 등산복 차림의 여자들이 대부분. 그야말로 청춘들은 가뭇에 콩나듯 했다.

40여년전 경춘선은 청춘들만 빼곡해서 그 아름다움을 미처 느끼지 못했다. 모처럼 혼자 40여년전 공지천 스케이트, 가평 남이섬, 청평호수, 김유정 시비, 강촌, 소양강 등을 더듬어 보려던 계획은 플랫폼에서 부터 어그러졌다. 한 청년이 스마트폰속의 지도를 보이며 “제가 춘천에 처음 가는데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말소리가 외국인 같아 물었더니 중국교포로 2~3년전에 유학왔다고 했다. “중국서 온 사람에게 미국서 온 사람에게 한국 길을 묻네요”했더니 그때부터 폭풍질문이 이어졌다.



미국 유학과 한국유학중 한국을 선택했고 현재 서울 의대에서 박사과정이라 했다. 미국속 한국사회 미국서 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관을 궁금해 했다. 주변 경치를 혼자서 감상하겠다는 계획은 포기해야 했지만 학구열이 가득한 야심찬 청년의 질문이 귀찮지 않았다.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않고 받아들이니 내가 아는만큼 알려주고 싶었다. 4시 쯤에 귀성열차를 타야 된 다니 자신의 계획도 그렇다했다. 학교서 같이 강의 들었던 선배님이 와보라해서 가는길인데 선배가 괜찮다면 같이 만나자며 전화를 걸더니 흔쾌히 허락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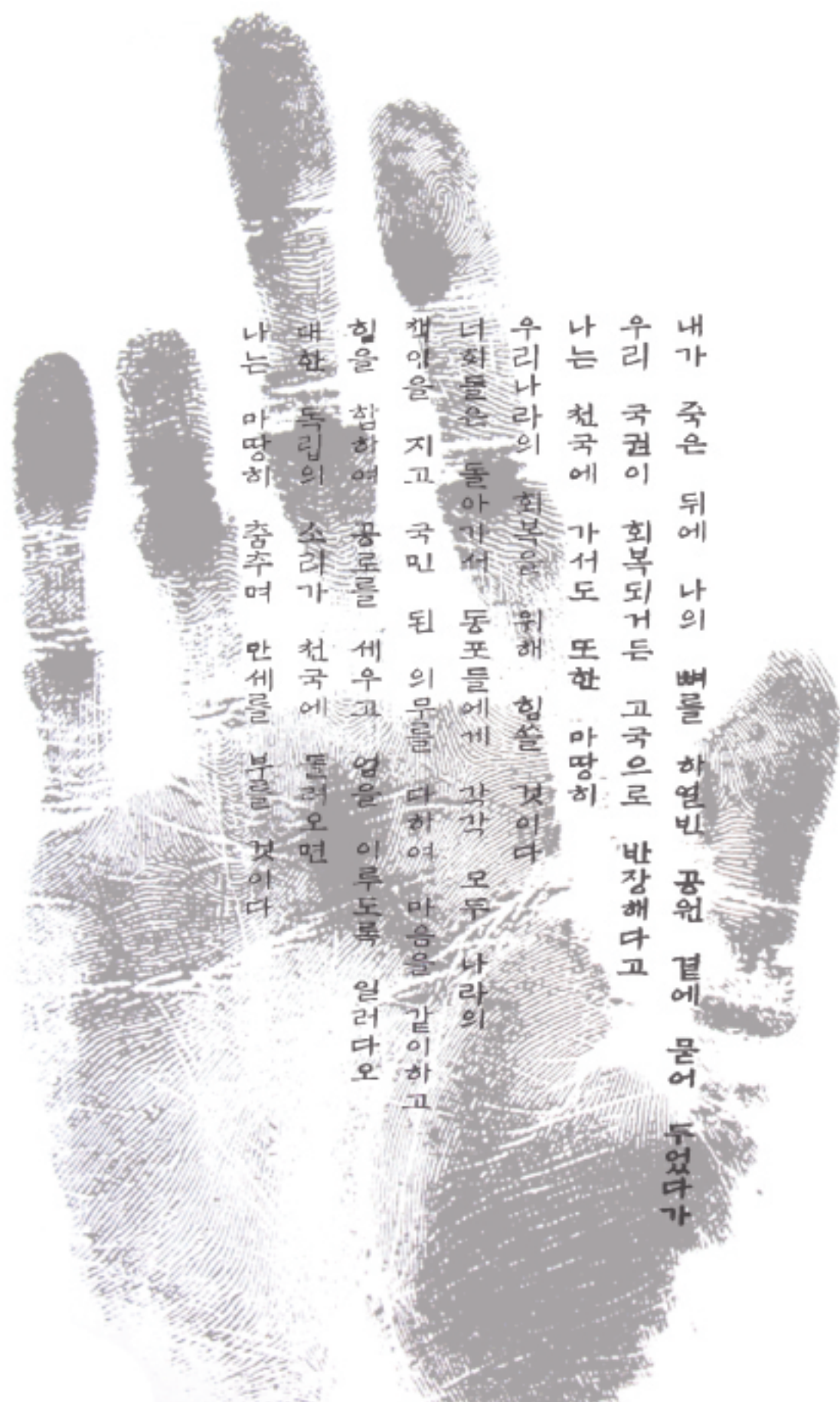
남춘천역에서 만난 그의 선배 교수는 역시 교수인 아내와 함께 나와 해맑은 웃음으로 맞이했다. 교수고 연배가 한참 후인 선배라했는데 그들 만난 순간 내입에서는 “아기네?”란 말이 튀어나왔다. 아름다운 부부였다. 나혼자 갔다면 그동네 최고라는 숯불구이 닭갈비와 막국수 맛도 못 봤을 거고 마침 5일장이 선 장터도 또 소양강 주변 드라이브도 언감생심이었을게다. 덕분에 자신들도 좋은곳을 돌아보고 맛있는것도 먹었다는 겸손도 잊지않는 그들이 감동으로 남을 듯 하다. 청춘열차속에서도 계속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언젠가 그대의 이름을 노벨의학상 수상자에서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덕담으로 끝맺었다.

현금은 한푼없이 교통카드 한장만 들고 나선 그의 청춘열차표를 사 줬더니 은행계좌를 묻는다. “미국의 유학생 시절 알게 모르게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다 갚지 못했다 조금이나마 갚는다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해주고 우리는 헤어졌다. 6시에 무교동 낙지집서 만난 45년지기 주 PD가 “누나 조심해 젊은 아이에게 박카스같은 음료수 주고 지갑 털어가는 아줌마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라고 철없다고 경고했다. 감동과 섬짓이 교차한 하루였다.

만주벌에서 만난 선열들의 발자취



김현자 (영문, '49)



최근에 헌정회가 주최하는 역사탐방기행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여순, 단동, 하얼빈 등 중국의 동북 삼성의 도시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만주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고구려의 활달한 기상과 영광이 있었는가 하면 곳곳에 망국의 한이 서려있는, 선대 애국자들의 피어린 자욱이 남아있는 고장이다.

여정(旅程)을 사전에 알고 떠났으면서도 내 나이와 체력에는 무리한 여행이 되겠다고 깨달은 것은 대련에서 단동으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였다. 둘러보니 31명의 동행 중 내가 최연장자였다. 최노약자였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 무모함을 자책했다. 허나 어찌랴, 이제 돌이킬 수도 없게 된 것을. 끝까지 잘 버틸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무사귀환을 하나님께 기원했다.

인천에서 한 시간 남짓 날아서 대련(大連)에 도착했다. 가까운 거리여서 그런지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지 않는다. 대련공항에서 한시간 쯤 달려서 여순(旅順)에 도착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안중근 의사(安重根 義士)가 모진 옥중생활 끝에 순국한 곳이다. 제법 규모가 커 보이는 감옥은 우중충한 벽돌 건물이 동과 서 그리고 중앙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있었다. 러일전쟁 때는 러시아군의 야전병원과 병영으로 쓰였고, 러일전쟁 후에는 일본 군대가 건물을 확장하여 감옥으로 썼다 한다.

우리는 안중근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 체포되어 5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바로 그 간방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다. 안 의사가 입었던 황토색 무명수의를 걸려있는 방을 지나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방도 들어가 보았다. 거기에는 교살할 때에 쓰였던 밧줄이 벽에 걸려있어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시신은 의사의 검증이 끝나자마자 통나무 틀 안에 구겨 넣어 영내의 묘지에 묻어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다만 옛 무덤자리와 몇 개의 통나무 잔해만 볼 수 있었다. 안중근의사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알려진 묘지는 영내의 동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시체를 담은 나무통이 뽕뽕하게 묻혀 있는 것을 해방 후 발굴했다는 이야기이다. 유감스럽게도 안 의사의 유해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옆방에는 신채호, 이회령, 최홍식등 당시의 애국지사들의 사진과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바로 이 여순감옥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다. 벽에는 “안중근이 중국과 조선 두 나라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시작했다” 라고 쓴 족자가 걸려있었다.

안중근은 구한말에 국력의 쇠퇴로 국정이 극도로 혼란하여 국운을 겨우 부지하고 있던 시기인 1879년에 탄생하여 굴욕적인 한일합방이 이뤄진 1910년까지 31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았다. 기록에 의하면 30세의 안중근은 열혈의 청년, 건전한 사상과 애국열, 수려한 미모에 넘치는 생김새, 강철 같은 체구, 그 어느 하나도 주목을 끌지 않는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전시실에는 안 의사가 단지(斷指)로 쓴 글도 걸려있었다. 1909년 3월 안중근의 집에 12명의 동지가 모여 비장한 구국의 방략을 세웠다. “동양의 평화가 유지될 때까지는 천신만고를 다하여 국사에 진쇄하여야 하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늘에 맹세합시다” 등의 말을 하고 난 후 안중근은 단도를 꺼내 왼손 무명지를 자르고 흐르는 피로 [대한독립만세] 라고 썼다고 한다.

같은 영내에 있는 일본군 관동총독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정도 돌아보았다. 해설자로부터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머리가 수그러졌다.

대련에서 여순으로, 단둥, 심양(瀋陽)으로, 또 하르빈으로 버스로 달리고 또 달리며 바라본 만주벌판은 너무도 광활하고 광대했다. 그중에 단둥과 심양은 각기 인구 7,8백만이 되는 대도시로 번창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수십 배는 되는 넓은 땅은 아직도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토지가 많아 보였다. 지하자원도 많고 관광자원도 많고, 게다가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작은 한반도(韓半島),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온 한국인으로서 부럽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중국의 13억 인구가 오늘의 한국인 수준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날에는 세계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말도 있고 보면 중국의 무한 발전을 마냥 좋아 할 수만은 없는 일 같다.

단둥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전쟁으로 단절된 압록강 철교

밑을 지났고 만리장성의 시발점이라는 호산(虎山) 산성도 둘러보았다. 이 산성 아래에 있는 북한과의 국경선인 일보과(一步跨)는 한 걸음에 뛰어 넘을 수 있는 개천으로 되어있고 물의 깊이는 몸이 잠길 정도라고 한다. 우리 일행의 관심은 역시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산천을 지척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 새삼 안타깝게 느껴졌다.

우리는 심양의 북정거장에서 기차를 타고 4시간 반이나 달려 하얼빈 역에 도착했다. 제1 프레트홈의 한 지점에 이르니 그 자리가 바로 안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자리라고 했다. 우리는 또 한 번 묵념으로 그의 애국 혼을 기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마지막 코스로 중국이 자랑하는 호림원에서 백여 마리의 호랑이를 구경하고 태양도(태양섬)도 관람하였다.

지나고 보니 이번 역사 탐방기행은 주로 안중근의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행이 되었다. 너무도 훌륭한 선열들을 가졌다는 자부심과 함께 나라생각은 별로 안하고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심을 동시에 안고 만주벌 유적지를 떠났다.

(2012/06/28)





이혜리 (사생 '60)

El Camino de Santiago

“순례자여, 당신이 길을 걷는것이 아니라 당신이 곧 길이다. 당신의 발 걸음, 그것이 까미노다.” - 순례자 숙소 벽에 있는 글 -

친구들과 아이들이 다 걱정하고 말리는 이 여정은 내 bucket list의 첫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하고 감행을 했지만 떠나는 순간까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을만큼 두렵고 불안했다. 끝까지 못해낼까 걱정도 되었는데 걷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터득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내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El Camino de Santiago는 Spain 북부의 동쪽 끝, France와의 경계에서 시작해 서쪽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장장 800km(500mile)가 넘는 멀고도 어려운 길이다. 지난 천 년 동안 순례자들이 걸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년 수만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다. 고생은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줌을 알기에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더럽고 불편한 모든것을 감내하면서, 그렇지만 또한 이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이기도 하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푸른 들과 노오란 유채꽃, 아담하고 이쁜 마을들, 우거진 숲들과 쿵쿵 흐르는 맑고 넉넉한 개울들, 높은 탑이나 굴뚝 위에 당당하게 동지를 틀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하얀 황새들, 저절로 걸음이 자꾸 멈추어지고 눈 앞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긴다. 어느 한 쪽을 떼어보아도 그냥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순박하고 친절의 사람들, 마을마다 있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성당들, 건축의 거장 Gaudi의 아름다운 건물과 museum도



빠어 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돌담과 성터들,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고된 삶을 그려 보는 일과 오래된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걷는 동안 천사의 모습이 되어간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면서 힘든 길의 위로를 나눈다. 얼마 안 남은 물을 나누어 마시고 아팠던 시간에 잠 안자고 간호를 해 받기도 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다. 방이 추워도, 물이 안 나와도, 더러워도, 무엇이든 그대로 다 받아 들이고 오늘 하루를 전심 전력으로 살아간다. 오직 오늘 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하는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이 현재에 살고있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며 현존의 아름다움에 매일 매일 눈 떠 간다. 길을 사이에 두고 이 쪽 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가와 묘지들, museum 에 있는 화려한 석관들을 보며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도 다시금 새겨 보았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삶에 참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죽음이 아닐까. “육체가 사라짐과 더불어 존재 전부가 깨끗하게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 대한 죽는 자의 예의”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 한다고 스피노자는 말했지.

나는 왜 여기 왔는가,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 길에서 갈망한 것이 분명 있었으며 또 버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 심신에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 여행에서 얻고져 한 것은 무엇이며 이 길에 갖고 온 필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걸으면서 그 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본향을 향한 까미노임을 알아차렸다. 내 삶 전체가 현재 이 췌점에 응축되어 있음도 어렵 뜻이 보였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까지 되는것이 까미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인내심과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신과의 만남도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15Lbs의 내 배낭 속에는 내가 50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일용품이 들어있다. 바지와 셔츠, 양말, 속옷들이 꼭 두 벌씩이고 세면 도구와 간단한 약, 모자, stick이 전부였다. 추위가 무서운 나는 침낭과 잠옷을 남편 배낭에 넣어 가긴 했지만. 매일 무거운 배낭을 지고 20여km를 추위와 잦은 비에 떠는 동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 내가 소유하고 누려온 그 많은 것들의 의미가 변해갔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도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그래도 집에 돌아와 뜨거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내 침대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화장실에 걱정없이 털썩 앉고 세탁기를 마음대로 쓰면서 편안했다. 그 길에서 만났던 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두들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걸었던가. 저녁이면 어두컴컴한 침대에 꾸부리고 앉아 부르르고 터진 열 발가락에 band-aid를 감고 통통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빠진 발톱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아내며 도저히 다시 걸을 듯 싶지않은 몸을 다음 날 새벽이면 다시 일으켜 길을 떠나던 용기 있는 사람들, 지금은 모두 집에 돌아가 그래도 그 힘들었던 날들을 그리워 하겠지. 우리가 그러하듯이.





이정순 (화학, '57)

Chicago의 지난 겨울은 몹시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던 어느날, 봄꽃을 피우기 위한 새순이 여기저기에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다렸던 봄이 왔는데, 반가웠던 순간도 잠시뿐 갑자기 따가운 여름 기온으로 변한 봄날씨에 꽃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요동을 치는 듯했다. 무성하게 자란 난초 꽃들은 활짝피어 고귀한 푸른색으로 보란듯이 서로 뽐내며 뒷뜰을 장식하더니 갑작스런 뜨거운 햇볕에 금방 오무라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이 오면 나에게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중한 기쁨이 있다. “북미주 동창회” -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곳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기쁨이 넘쳐 보고싶은 동창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서 함박웃음을 짓게한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지도 어드뎡 57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학교 교정에서 강의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부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내 생애를 빛내주고 장식해주고 좋은 친구 선후배를 만나게 해준 곳. 그 곳은 다름아닌 이화여자대학교란 별천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5년만에 시작된 6.25 한국전쟁도 끝났지만 정부가 아직 서울로 환도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우리는 부산에서 첫 학기를 맞이하였다. 승객기차도 없어서 화물차에 몸을 싣고 부산에 도착해 보니 우리의 얼굴엔 까만 얼룩이 저있어 서로 붙들고 웃기도 하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난다. 마침 우리보다 먼저 부산에 내려와 있었던 고등학교 4년 선배들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숙소로 안내해 주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누구나 평화로운 삶을 원했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화대학 동창들은 대학에서 주님을 만났으며 기독교 문화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 힘은 들었지만 어려움 중에도 우리들은 마음 놓고 공부하며 삶의 즐거움과 좋은 추억도 쌓았으며 후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단어 “어머니”란 특권을 얻기도 하였다. 우리가 모범스런 “어머니”로 살 수 있게 키워주신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교사님들께 한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 시카고 동창회는 올해들어 회장과 임원들이 젊은 후배들로 교체되면서 더욱 활기찬 모임을 하고 있으며 고문들은 계속해서 동창회를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심리학자가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은 단순한 미덕 그 이상으로 소중한 미덕이다.”라고 했듯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해 친구들은 물론 동창회를 위하여 온 힘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천사들의 모습인 것 같다. 나는 몇년동안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그로 인해 걸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지만 동창회에는 매년 꼭 참석하고 싶다. 말없이 봉사하는 후배들과 친구들이 격려해 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내게 어떠한 치료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긴다. 그 크나큰 사랑 속에 살면서 어찌 내가 우리 동창회를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동기동창들도 시카고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고 가까이 살면서 친구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웃 사촌”처럼 지내며 살고있다.

이화의 동창들은 세계 방방곳곳에서 한국 여성의 긍지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할만큼 정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롭다. 살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에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삶의 가치관을 더욱 올바르게 세워서 모범된 여성으로 자아를 가꾸어가는 현명한 동창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곧 9월이 오면 북미주 곳곳에서부터 모이는 동창들을 건강하고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詩



김인자 (약대, '63)

"이화대학을 생각하면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흰 매화꽃이
부러질듯 바람에 휘날려도
다시 세워지는 흰 갈대가
내강외유한 여성의 아름다움이 스쳐간다

중강당에서 대강단으로 가는
숲 속의 오솔길이
도서관을 애워싼 푸른 산이
그 속에서 속삭이던 자의 동그란 얼굴이
푸른 꿈으로 온 몸을 채웠던
젊음이 심장을 두드린다

공부의 스트레스보다
인생의 참 모습을 알려준 이화대학
반세기가 지났어도,
흰머리의 할머니가 되었어도
추억만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이화대학
우리의 열정이 숨 쉬는 이화대학
푸르게 영원하라!"



이(황)춘자 (약대, '62)

붉은 저녁 노을의 화려함
별빛 가득한
밤 하늘의 신비

창가에 부딪히는
빗 방울의 아련한 소리

찍히고 잘려진 고목나무에
빠꿈이 고개 내민
버섯 송이
돌작발 사이에
이름 모를 잡초들

파릇 파릇 돌아나는
새 생명들
어느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설레임으로
서터를 누르네



정(문)금숙 (국문, '63)

재미시인협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14년 제 16회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28일 코리아타운 소재 로텍스 호텔 에서 열렸다. 또한 지난 6월 29일에는 재미시인 협회가 주최하는 2014년 재미시인상을 수상 하였다.

“한국시”로 등단한 정 동창은 [머릿살 다이어트], [나의 바퀴도 흔들렸다], [황홀한 관계속에서] 등 네 권의 시집과 세 권의 동인지를 펴냈다.

남가주 LA 근교에 살고있는 정(문)금숙 동문은 가산문학상, 펜클럽 미주지부 펜문학상을 수상 했고 재미시인협회, 미주시인협회 회장을 역임 한 바 있다.



김 화 진 (사생, '74)



재미수필문학가협회에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화진 동문이 2014년 미주 중앙일보 신인문학상의 수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0년 미주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생활수기 입상을 시작으로 글쓰기에 입문한 후 2005년 한국일보 생활수기 입상, 2007년 재미수필문학가협회의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수필”의 등단작가로 이번 수필부문의 최우수 작품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의 당선작 “빈 터”는 여섯 해 전 작별한 남편의 묘지를 찾아 그가 없는 혼자서 지내온 날들의 사랑과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만날 희망을 노래한 글이다. “좀 더 머물러 주지 그랬어, 나 혼자선 너무 힘들는데...” 둘이 맞잡고 가야할 길을 혼자서 가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그녀가 남은 시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기원한다.

서 동 주 (도예, '82)



현재 시카고 부근에 살고 있는 서동주 동문은 올 2월부터 3월 7일까지 한달동안 Skokie Public Library 에서 시카고 “한국의 해”를 기념하는 초대전을 열었다. 또한 5월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 관훈동 경인 갤러리에서 사과를 주제로 개인전을 했다.

“사과속의 씨는 셀수 있지만 씨속의 사과는 셀수없다”.

To me, apples represent the totality of the universe - the senses sight, sound, smell, taste, and texture.

My apples also represent space, density, complexity, growth, life, stability, and change.

서 동문은 1986년에 도미, 남편 강문석씨와 슬하에 두 자녀가 있으며 현재 Glenview School of Art를 15년간 운영하고 있다.

Chicago

시카고

- 2014년 5월 4일: 문화회관에서 연례총회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혜 동문의 “이화인의 긍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홍명희 이사장의 취임과 김현수 사위님이 “웃음치료” workshop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 2014년 6월 12일: 송복진 회장집 정원에서 별미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동창회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 2014년 8월 10일: 홍명희 이사장께서 임원들과 고문들을 식당에 초청해서 저녁식사 대접 하였고 동창회 일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 2014년 8월 24일: 문화회관에서 가을 정기 임원이사회로 35명이 모였다.
- 2014년 9월 27일부터 3박 4일동안의 북미주 동창회 연례총회를 위해 우리 시카고에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만찬에는 171명이 참석했고, 또한 북미주 이화인 미술 작품들을 시카고 문화회관 화랑에서 12일 동안 전시했다.
- 2014년 11월 2일에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였다.
- 홍명희 이사장님께서 김지원 동문 (의과 90)과 이경환 동문 (음악과, 37) 장례식에 교기를 갖고 참석하여 조의를 표했다.
- 2014년 빨간 캘린더 수첩을 150권 주문하여 연락망을 통해 동문들에게 Christmas 선물로 드렸다.
- 2014년 3월 22일: 문화회관에서 봄 정기 임원이사회에 34명이 모였다
- 2014년 4월 26일: 데스플레인 강을 낀 숲속에서 봄나들이 만보걷기에 26명이 참여했다.
- 2014년 5월 3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2014년 시카고 지회 연례총회에 90여명이 참석했고 성유나 동문이 신임회장으로 취임되었다.



Las Vegas

라스베가스

을 라스베가스 지회 동창회장을 맡은 최계자입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매년마다 한국에 동창기금 \$1000 을 기증 합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며, 매년 Christmas 때 부부 동반으로 가라오게도 하며 즐거운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에는 신선한공기를 마시며 Red Rock Canyon 에서 picnic 하며 동문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올 가을 Los Angeles 북미주 동창회 모임에서 다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2014년도 임원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회명
이사장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음악부	이 명 혜 *	(음대 74)	Washington, DC
회장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조 남 선	(성악 73)	Las Vegas, NV
제1부회장	이 영 희	(국제사무 73)	Washington, DC		김 소 영	(불문 63)	San Diego, CA
제2부회장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윤 미 라	(기악 60 입)	San Diego, CA
사무총장	임 성 숙	(물리 81)	Los Angeles, CA	홍보부	김 희 영	(음대 75)	Chicago, IL
준비위원장	한 영 숙	(영문 60)	Los Angeles, CA		권 오 화 *	(가정 61)	Chicago, IL
총무	안 정 옥	(의대 70)	Los Angeles, CA		조 정 기	(의대 66)	Madison, WI
서기	정 해 주	(약학 67)	San Diego, CA		이 동 우	(영문 57)	Hernando, FL
회계	성 유 나	(영문 79)	Chicago, IL	회원부	윤 용 임	(의대 64)	Rifton, NY
	이 혜 리	(사생 60)	Los Angeles, CA		권 영 자	(의대 68)	Seattle, WA
감사	김 희 영	(음대 75)	Chicago, IL		이 삼 희	(가정 68)	Morganville, NJ
	이 영 희	(국제사무 73)	Washington, DC		김 화 숙	(약학 68)	Los Angeles, CA
자문위원	조 용 옥 *	(의대 59)	Chicago, IL	장학부	안 미 사	(신방 67)	Temecula, CA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권 영 애	(의학 64)	Las Vegas, NV
	이 희 련	(의대 63)	Las Vegas, NV		박 선 영	(가정 66)	Washington, DC
	이 학 혜	(의대 60)	Memphis, TN		송 희 연	(행정 85)	Chicago, IL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한 수 강 *	(영문 66)	Las Vegas, NV
	최 경 숙	(영문 66)	Southern, NJ		송 영 자	(교육 60)	Los Angeles, CA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장 현 자	(의대 67)	Los Angeles, CA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공천위원	김 명 미 *	(의대 67)	Los Angeles, CA	교육부	임 삼 규	(영문 54)	Las Vegas, NV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김 성 혜	(영문 66)	Milwaukee, WI
	이 정 은	(가정 60)	Citrus Hills, FL		김 초 영	(사생 60)	San Francisco, CA
	권 오 화	(가정 61)	Chicago, IL		이 정 화	(수학 81)	Chicago, IL
모금위원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미술부	민 창 순	(간호 84)	Chicago, IL
	한 영 숙 *	(영문 60)	Los Angeles, CA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조 효 은 *	(교육 71)	San Diego, CA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재정관리위원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편집부	이 상 인	(의대 57)	Orlando, FL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고 순 정	(의대 77)	Los Angeles, CA
회칙개정위원	박 혜 경	(화학 82)	Las Vegas, NV		윤 중 식	(의학 59)	Chicago, IL
	김 명 미 *	(의대 67)	Los Angeles, CA		윤 영 희	(의대 70)	Welsh, LA
	최 경 숙	(영문 66)	Southern, NJ	음악부	이 윤 경 *	(가정 67)	Scarsdale, NY
	한 영 숙	(영문 60)	Los Angeles, CA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김 영 희	(약학 68)	Chicago, IL
	이 주 연	(의대 59)	Plano, TX		이 영 희	(영문 68)	Chicago, IL
사회봉사부	이 화 섭	(약대 60)	Chicago, IL	미술부	배 계 자	(의대 66)	Los Angeles, CA
	심 현 숙 *	(사복 62)	Minnesota, MN		이 풍 자	(영문 62)	Chicago, IL
	오 금 녀	(영문 49)	Minnesota, MN		김 흥 자 *	(섬예58입07졸)	Washington, DC
예배, 선교부	안 정 옥	(의대 70)	Los Angeles, CA		정 옥 지	(미대 65)	Washington, DC
	강 정 애 *	(의대 67)	Los Angeles, CA	편집부	이 희 자	(미대 65)	Washington, DC
	김 진 희	(정외 87)	Chicago, IL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오 정 숙	(서양 88)	Washington, DC		서 동 주	(미대 82)	Chicago, IL
	고 인 나	(교육 60)	Washington, DC		하 양 신	(가정 97)	Chicago, IL
연예부	구 은 서 *	(간호 73)	Chicago, IL	편집부	최 경 숙 *	(영문 66)	Southern, NJ
	김 화 진	(사생 74)	Los Angeles, CA		호 진 희	(가정 68)	Los Angeles, CA
					강 정 애	(의대 67)	Los Angeles, CA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이 정 순	(화학 57)	Chicago, IL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임 성 숙	(물리 81)	Los Angeles, CA

* Chair person

Program Schedule

9월 26일 (금)

12:00 pm	등록
2:00 pm ~ 4:00 pm	임원이사회
5:00 pm ~ 6:00 pm	저녁식사
6:15 pm ~ 6:45 pm	Art presentation
6:45 pm ~ 9:30 pm	동창소개/친목의 시간

9월 27일 (토)

6:30 am ~ 7:00 am	아침운동
7:00 am ~ 8:00 am	식사
9:00 am ~ 11:00 am	workshop
	1. 최명희 박사
	2. Mary Hong, Senior VP
11:30 am ~ 3:00 pm	Beach Outing/ Getty Villa
4:00 pm ~ 6:00 pm	의대모임/자유시간
6:30 pm ~ 10:30 pm	총회 및 BANQUET

9월 28일 (일)

6:30 am ~ 7:00 am	아침운동
7:00 am ~ 8:00 am	식사
8:30 am ~ 9:00 am	주일 예배
9:00 am ~ 11:00 am	Wrap Up
11:30 am	해산/추가여행



2014 임원 이사회 Agenda

September 26 (금요일)
2:00~4:00 p.m.

- 개회선언
- 이사소개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각 분과위원 활동 보고
- 결산 및 예산안 심의
 - 2014년도 결산보고
 - 2015년도 예산안 심의
 - 재정관리 위원회 보고
- 공천위원회 보고
- 임원 소개
 - 신임회장 / 수석부회장 소개
- 경과보고: 통합 동창회를 위한 활동
- 2015년도 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기타 안건과 공지사항
- 폐회

총회 Agenda

September 27 (토요일)
6:30~7:30 p.m.

- 개회선언
- 회장 환영사
- 이사장 인사
- 전 회의록 낭독
- 사업보고
- 결산 및 예산보고
- 경과보고: 이사회 보고
- 2015년도 총회장소 발표 및 인준
- 신임회장 / 수석 부회장 인준
- 신임회장인사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2014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동창회 연례총회를

9월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2박3일 동안

Los Angeles 에 있는 Biltmore Hotel 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추가로 9월28일(일) - 30일(화)까지

California Style 여행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아래적힌 내용을 참조하시고
총회 참가 신청서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ltmore Hotel LOS ANGELES

Hotel: Website: www.millenniumhotels.com Tel: (213)624-1011

Millennium Biltmore Hotel Los Angeles

506 South Grand Ave., Los Angeles, CA 90071-2607

Online Reservation: <https://reservations.millenniumhotels.com/ibe/details.aspx>

Telephone Reservation Code: 1410EWHAUV

Room Rate: \$ 150 + tax (2인 1실) Standard Double/Dou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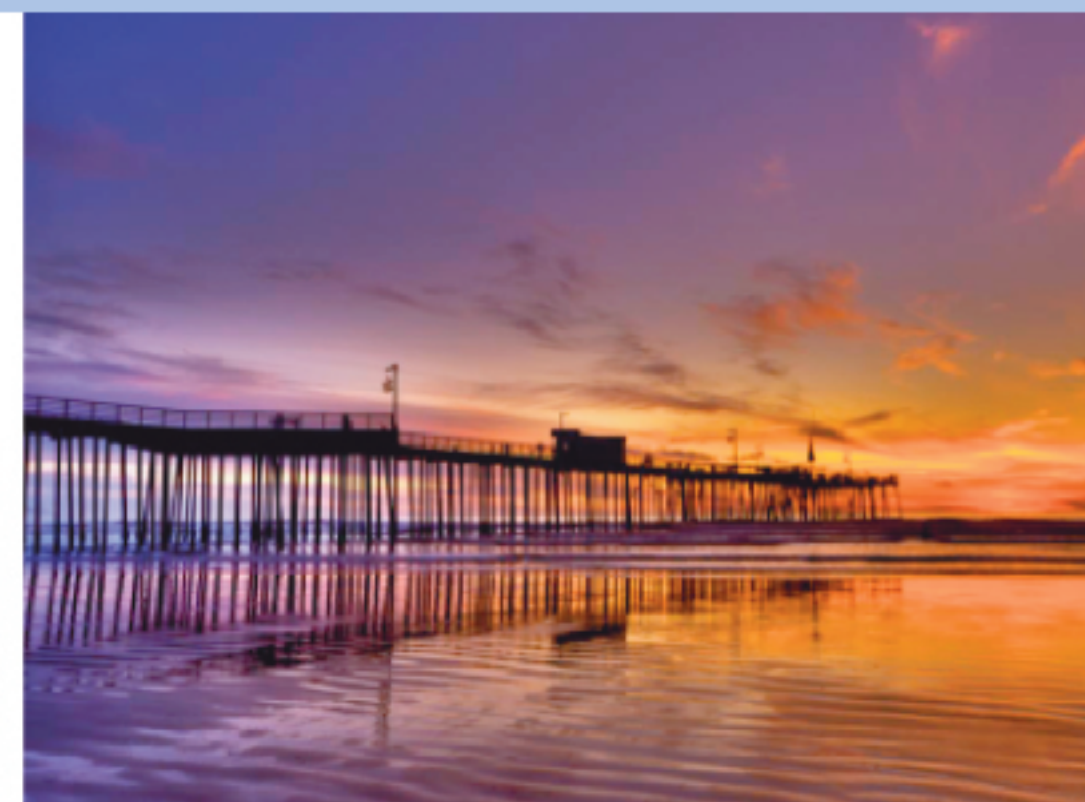
자르는 선

총회 참가신청서

참가자	한글 (maiden name) _____	영문 _____
	전공과목 _____	졸업연도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Zip _____
전화	집 _____	Cell _____
e-mail	_____	
동반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총회참가비	9월 26일 (금) ~ 28일 (일) \$ 180/person: _____	
추가여행	9월 28일 (일) ~ 30일 (화) \$ 290/person: _____	
이사비	\$100	행사후원비 _____ 장학기금 _____ 발전기금 _____
제2 의료원 건립 (마곡) 후원금	_____	
Payable to	EWUAANA	
보내실 주소:	Young Sook Lim (한영숙) 775 Panorama Pl., Pasadena, CA 91105-1020	
문의전화:	회장 김명미 714-287-9101, 준비위원장 한영숙 626-419-2348	

* 행사후원비, 장학기금, 발전기금, 제2의료원 건립 등 뜻하시는대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행일정



John Steinbeck Center

Located in the heart of Oldtown Salinas, the National Steinbeck Center is a cultural destination dedicated to the life and works of Nobel Prize-winning author John Steinbeck. Steinbeck's twenty-seven books captured the fascination of millions with his imaginative stories about the hopes, dreams, and struggles of rural life in the 20th century. The Center features interactive exhibits, with video clips and information about his most celebrated works including *Of Mice and Men*, *Grapes of Wrath*, and *East of Eden*. The Center is the largest museum in the United States dedicated solely to a writer and is located only a few blocks away from the home where Steinbeck was born and raised.



17-Mile Drive

Hug the Pacific coastline along 17-Mile Drive, a scenic road through Pebble Beach and Pacific Grove on the Monterey Peninsula in California. This one-of-a-kind highway meanders between rocky beaches and unique forests as it passes famous golf courses, mansions and a variety of other attractions. Frequent turnouts along the road allow for visitors to take photos at scenic points including the Lone Cypress, a salt-worn tree that has become a symbol of the region, Seal Point, Bird Rock, and the 5,300-acre Del Monte Forest of Monterey Cypress trees. The golf courses along the route are beautiful both in design and location, especially the private Cypress Point Club, which is frequently ranked as one of the top ten in the world.



Redwood Park

Most people think of the Redwood Forests as home to the tallest trees on Earth. But these protected parks are also comprised of vast prairies, oak woodlands, wild riverways, and miles of pristine coastline, all supporting a rich mosaic of wildlife diversity and cultural traditions. Together, the National Park Service and California State Parks manage these lands for the inspiration, enjoyment, and education of all people. These towering redwood trees, a symbol of northern California, are a constant reminder of one's place in the ecosystem and help put into scale the immensity of the timeline of life on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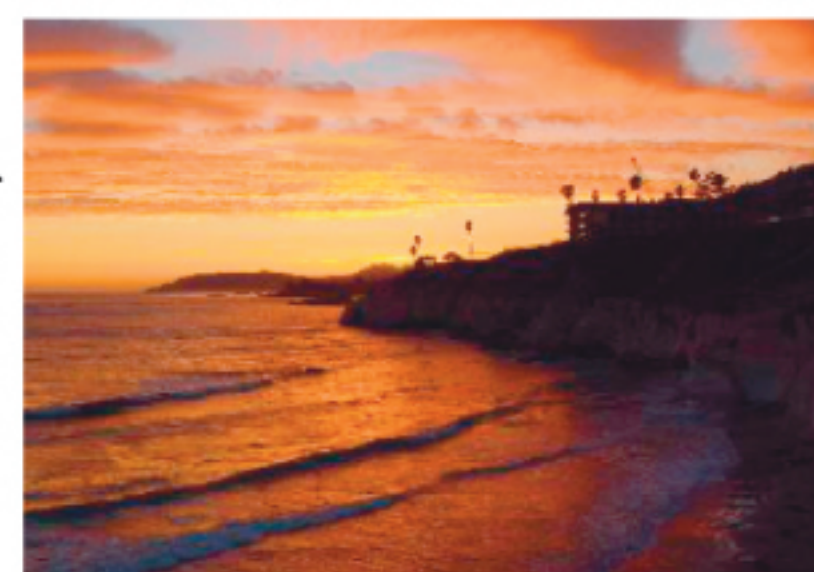
Wineries

California is home to thousands of wineries that offer an unforgettable experience in one of the biggest wine-producing regions of the world. The wineries of the central coast grow some of the oldest grapes in the nation, planted here by Franciscan monks in the 18th century as they built missions along El Camino Real on the California coastline. The climate here ranges from moody to mild, which produces an excellent diversity in flavors and varieties of wine that cannot be tasted anywhere else. Enjoy these wines paired with food made from uniquely flavorful and exclusively local ingredients, as the central coast is known for its fertile soil and rich agriculture.



Pismo Beach

Famous for its incredible sunsets, Visitors to Pismo Beach can enjoy a variety of outdoor activities such as walking through the Monarch Butterfly Grove, scuba diving, hiking, miles of beautiful and clean beaches, exploring tide pools, coves, and caves. Enjoy the 1200-foot Pismo Pier for sightseeing, walking, fishing and witnessing the great sunset. With an official nickname as the Clam Capital of the World, Pismo Beach clam chowder is a highlight of any restaurant and cafe menu. The eucalyptus trees along the southern end attract thousands of migrating monarch butterflies every winter. Despite its urban surroundings, Pismo Lake Ecological Reserve is home to a variety of wildlife, including the North American beave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세계 표준입니다

JCI인증 획득으로 환자 안전, 의료 질 국제 표준 입증
 뇌졸중 진료분야 JCI CCPC 인증 획득
 유방암 수술 'TOP 5' 진입으로 국내 여성의학 선도
 보건복지부 선정 대장암 진료 평가 최우수 병원
 위대장센터·간센터 메디컬코리아 대상 수상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6년 연속 수상
 보건복지부 유방암·대장암·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해외 이화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 검진 프로그램 운영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제휴 호텔 이용 시 객실료 할인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 여성암병원,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레이디 병동 운영으로 여성암 치료 분야 선도
- 남녀 검진 공간을 분리한 여성건강진센터 등 특화된 검진 프로그램
- 당일 진료 의뢰, 1주일 이내 시술 ONE - STOP 진료 서비스
- 첨단 장비의 앞선 도입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와 치료
- 2017년 마곡 국제업무지구에 1,000병상 규모의 첨단 국제병원인 제2부속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도약

진료 예약 상담 및 의료원 방문 관련 문의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82-2-2650-5875, 5004

E-mail. emgift@eumc.ac.kr

이대목동병원 www.eumc.ac.kr/mokdong 이대여성암병원 www.eumc.ac.kr/wch 여성건강진센터/건강증진센터 health.eumc.ac.k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EWHW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ABC 상담대학 교육원

ABC 사역내용
개인 혹은 그룹으로
교육/상담합니다.

- 대화교육
- 특수 부모교육/ 상담
- 가족 상담
- 뇌건강 교육
- 부부교육/ 상담
- 정신건강-정신질환 상담 교육
- 부모 교육/ 상담
- 청소년 교육
- 행동(습관)장애, 성적부진

I. 대화 교육

- 일반 대화
- 부부 대화
- 부모자녀 대화
- 청소년 대화
- 동료 대화

II. 영어권 대화 교육

III. 대화교육 강사양성과정

I. 뇌-정신건강 교육

- 정신장애 가족상담과 교육
- 뇌 건강과 인간행동, 감정조절, 성품형성
- 주요 정신질환 (Major Mental Illness)의 이해
- 기분장애 Mood Disorder
- 청소년, 아동 행동, 학습장애
- 마음의 상처나 충격에 의한 정신 질환
- 약물 치료의 효과와 후유증
- 자살, 타살
- 정신적 문제와 가정, 사회, 종교, 학교, 자립 토론

II. 영어권 뇌-정신건강 교육



대표-김(여)명미 (의대, '67) 원장- 고명희

1633 E. 4th Street #138

Santa Ana, CA 92701

714-287-9101, 714-351-2529

www.abcnice.org

e-mail: abclove77@gmail.com

RYU MEDICAL CORPORATION

여천기 정신과 전문의

Chun Kee Ryu, M.D.

Diplomat of the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 Neurology

Tel. (714) 543-4447

Fax. (714) 543-4488

1633 E. 4th Street #138

Santa Ana, CA 92701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위한— 차움 라이프센터

차움 라이프센터는 세계 최고의 줄기세포 기술력을 통해
안티에이징을 선도하는 **CHA의과학 대학교 차병원 그룹**이 오픈한
25만 Sf. 규모의 바이오 안티에이징 멀티컴플렉스로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과 첨단 줄기세포의학, Medical Spa, 운동처방,
식품치료, Bio Insurance의 지혜와 기술력을 총동원해 즐기면서
건강을 찾아주는 의학과 휴식을 결합한 미래형 Life Center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미래형 통합 건강관리시스템

세포 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첨단 현대 의학 검사와
전통 한의학 및 대체의학 검사를 병행하여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 개인의 질병 가능성 및 노화도를 미리
진단 및 예방하고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패키지 문의

1·855·242·0200

www.chaum.net

LIFE CENTER
The Power to Age Beautifully

Chaum

관광회사최초 벨라지오 호텔
(서부관광과 함께) 라스베이거스 매주 월요일 출발

MGM Grand 호텔
(서부관광과 함께) 라스베이거스 매주 화요일 출발

**서울 왕복
가장 싼 티켓**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전미주 총판매 1위 기념!!

**대한
항공**

미서부

- 미서부관광
- 그랜드캐년/브라이스
- 자이언캐년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 스카이워크/라스베이거스
- 세도나/오크크릭캐년
- 요세미티/레이크타호
- 레드우드
- 기차여행

[삼호관광은 안심 하셔도 됩니다]

Q. 유럽여행 가십니까?

A. 전세계 어디를 가시더라도 \$10,000,000보장 보험이 같이 갑니다.

Q. 삼호 버스로 관광가십니까?

A. 삼호관광은 최대 \$15,000,000 보장보험이 같이 갑니다.

해외여행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입니다.
순수한 여행을 통한 자연과의 만남을 소중히 지켜온 **삼호관광**은
고품격 관광을 추구합니다.
세심한 정성과 정직한 마음, 바로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삼호관광**의 고품격 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록키
- 고국방문
- 건강검진(연대 세브란스 병원)
- 일본/중국
- 유럽여행
- 남미-브라질/페루
- 성지순례
- 크루즈
- 미동부
- 하와이
- 멕시코칸쿤
- 뉴질랜드/호주/피지
- 동남아

**1등
회사**

삼호관광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예약 213.427.5500

www.samhotour.com

3030 W. Olympic blvd. #104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코너 VIP 플라자내)



Midwest Pain and Rehabilitation Clinic, Ltd.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Phone: 605-275-3070 Fax: 605-275-3071

장명주 (의대, '77)

Colorcom AD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ur goal is to help you pursue yours. It's that simple.

At Merrill Lynch, you're at the center of every conversation. Your Merrill Lynch financial advisor will take the time to understand what's most important to you: your family, your work, your hopes and dreams. Together, we'll create an investment strategy that's uniquely yours.



Mary C Hong CFP®, CRPC®

Wealth Management Advisor
Senior Vice President-Wealth Management

505 N. BRAND BLVD.
GLENDALE, CA 91203

Phone: (818) 254-0455



Life's better when we're connected™

CFP® is a certification mark owned by the 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 Inc., and is awarded to individuals who successfully complete CFP Board's initial and ongoing certification requirements. ChFC® is the property of The American College and may be used by individuals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initial and ongoing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this designation. CIMA® is a registered certification mark of Investment Management Consultants Association Inc. CIMC® is a registered certification mark of Investment Management Consultants Association Inc. The CLU® designation is a registered mark of The American College. CPM is a registered service mark of the Academy of Certified Portfolio Managers.

Merrill Lynch makes available products and services offered by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MLPF&S"), a registered broker-dealer and member SIPC, and other subsidiaries of Bank of America Corporation ("BAC").

Investment products: **Are Not FDIC Insured** **Are Not Bank Guaranteed** **May Lose Value**

The Bull Symbol, Merrill Lynch Personal Investment Advisory and Merrill Lynch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Bank of America Corporation.

© 2014 Bank of Americ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AR9U5C6E | TEMP-12-13-0631 | 470949PM-0314 | 03/2014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882 E. Lemon Heights Dr. Santa Ana CA 9270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4

Ewha Art Exhibit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에서 올 가을 연례총회와 함께 제4회 예술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전시회는 미술을 사랑하고 창작 활동에 정진하는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창회에 참석한 선후배들과 서로 나눔의 기회를 가지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주제는 “선택한 삶(Chosen Homeland: Harmony and Diversity)”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 온 제2의 조국에서 화합하며 살아 가는 생활에 의미를 두고 정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김홍자 교수님께서 Curator로 수고를 하십니다.

Ewha Art Exhibit 2014

- 기간 : 2014년 9월 26일 (금) - 28일 (일)
- 장소 : Millennium Biltmore Hotel
506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71
- 문의 : 조효은 (교육, 71)
hshorack@san.rr.com | 전화: (858) 525-5211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ewuaana@gmail.com
발행인: Dr. 여(김)명미
편집인: 임성숙